서울시 거주자의 사회계층에 따른 부엌가구의 수요 예측*

The Demand for Kitchen Furnitur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lasses in Seoul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 수 윤복자 · 윤정숙 · 박영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김혜정 · 김영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연구조교 신 인 호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Professor ; Bokcha Yoon, Chungsook Yoon, Youngsoon Park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
Researcher ; Hyejung Kim, Youngjoo Kim
Research Assistant ; Inho Shin

〈목 차〉

Ⅰ. 서 론
Ⅱ. 조사대상자의 특성
Ⅲ. 부엌가구의 수요특성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find the value and stress for the house work in the kitchen, 2) to predict the demand for the kitchen furnitur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lasses of Seoul resident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940 homemakers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and for kitchen furniture according to socioeconomic classes. The upper-lower class residents preferred a higher cost furniture of U shaped work center. The middle-middle class residents wanted the free standing type furniture of L shaped or kitchenette type. The middle-lower class residents preferred a lower cost furniture of U shaped or kitchenette type.

* 이 논문은 1993년도 주식회사 한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지위의 향상, 가족구성 및 생활양식의 변화, 경제기술의 발달 등으로 부엌에 대한 종래의 인식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즉 여성전용의 공간에서 남녀 공용공간으로 부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단순한 가사노동공간에서 벗어나 가족 단란 및 접대까지도 겸하는 중심적인 생활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러한 부엌의 인식과 기능면의 변화로 부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부엌가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바뀌고 있어 변화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은 수많은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를 모두 파악하고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몇개의 동질적 집단으로 소비자를 구분하여 기업의 제환경에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 마케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계층을 수요가 비슷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의 사회계층별 부엌가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부엌가구 시장 세분화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계획된 실증적 연구이다.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본조사를 행하였다.

본조사의 설문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주택의 물리적 특성 변인,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현재 부엌가구의 실태, 부엌 교체시의 예산, 미래의 부엌가구에 대한 수요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1993년 9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로 하였으며, 상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을 제외한 전 가구를 표집 대상으로 하여 각 계층과 주거지역이 골고루 표집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계층을 상하, 중상, 중중, 중하류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 속하는 주거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1인당 담당세액(한국경영정보 조사연구소,1992)을 기준으로 서울시 453개 동을 4단계의 계층 구분에 따라 각 계층별로 95개 동씩 구분하였다.

즉 상류에 속한 동은 1등에서 113등까지에 해당하는 동 중에서 임의로 8개 동을 선정하였고 이중에서 가족생활주기가 고루 표집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역에 속한 조사대상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개교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들 선정된 16개교를 대상으로 총 19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616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3.3%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1572부를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빈도, 평균, 백분율, χ^2 검증, F 검증 등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엌의 수납상 형태〈도표 참조〉는 상하분리 수납장과 키큰장이 있다. 상하분리 수납장은 하부 작업대의 가로면이 길어 작업면을 넓게 쓸 수 있으나 상부 수납장이 적어 수납효율이 적은 형태이다. 이에 비해 키큰장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수납이 가능한 장으로 작업대의 가로면은 다소 줄어드나 수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이다.

부엌의 유형〈도표 참조〉은 벽면부착형과 거실대면형이 있다. 벽면부착형은 모든 작업대가 벽면을 향해 있어 싱크볼 등 물을 쓰는 일과 조리시 벽면을 향해 돌아서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을 하면서 가족과 단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부엌이 거실이나 식당 등 다른 공간과 연결된 개방공간일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작업과정이 노출되지 않아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고 부엌의 냄새도 비교적 다른 공간에 덜 확산되는 형태이다. 반면에 거실대면형은 개수대 또는 가열대가 기존의 부엌형태(벽

면부착형)와는 달리 거실을 향해 배치되어 있어 작업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벽면을 모두 수납장으로 처리하여 수납효율을 높인 형태이다.

Ⅱ. 조사대상자의 특성

1.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

부엌가구의 수요를 사회계층별로 파악하여 부엌가구의 시장을 세분화하기에 앞서 부엌가구의 수요가 달라지는 원인이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사회계층별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에 대한 생각을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가사일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18의 값을 보여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표명하였으나 '가사일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일'이라는 항목에서는 평균 2.18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가사일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지루하다'는 항목에서는 평균 3.78의 값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가능하다면 가사일 이외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항목에는 4.59의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서 대다수가 실제로는 가사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계층별로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들은 '가사노동을 하고 나면 피로감을 느낀다'는 항목에 대해 평균 4.06의 값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일을 하면 신이 난다'와 '가사일을 통해 생활이 즐겁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2.57과 2.91의 평균값을 보여 가사노동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만족을 얻는 경향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계층별 특성

사회계층은 자동차의 차종[1] 을 분류지표로 하여 상하, 중상, 중중, 중하 계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상하계층은 2000cc급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를 소유한 계층으로 대학 및 대학원졸 학력의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한 가구주가 많으며, 41-60평의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나 축소기의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가구 집단이었다.

중상계층은 1800cc급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를 소유한 계층으로 대학, 대학원졸의 학력으로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한 가구주가 많으며, 26-60평의 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고등교육기 또는 대학교육기의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가구 집단이었다.

중중계층은 1500cc급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를 소유한 계층으로 고등학교, 대졸 학력의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한 가구주가 많으며, 19-40평의 단독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고 형성기나 초,중등 교육기의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가구 집단이었다.

중하계층은 1300cc급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를 소유한 계층으로 중, 고졸의 학력으로 사무직과 전문직에 종사한 가구주가 많으며, 18평 이하의 단독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으며 형성기나 초등교육기의 가족생활주기에 있는 가구 집단이었다.

1) 사회계층 지표로서 자동차의 차종에 대한 타당성은 대한가정학회지 32권 4호의 윤복자 외(1994)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람.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특성 \ 사회계층		상하계층 f[1] (e)[2]	중상계층 f (e)	중중계층 f (e)	중하계층 f (e)	계 빈도(%)	X^2 값 (자유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 사무직	9 (29.5)	111 (129.5)	112 (89.2)	72 (55.8)	304(30.6%)	
	직업 판매서비스직	18 (18.2)	77 (79.6)	59 (54.9)	33 (34.4)	187(20.4%)	
	직업 관리직	39 (21.9)	117 (99.7)	53 (68.6)	25 (43.0)	234(24.1%)	***
	직업 전문직	17 (14.6)	72 (63.9)	36 (44.0)	25 (14.2)	150(15.1%)	65.78
	직업 생산직	2 (2.6)	7 (11.5)	8 (7.9)	10 (5.7)	27(3.6%)	(15)
	직업 기타	8 (5.4)	24 (23.8)	13 (16.4)	11 (6.3)	56(6.2%)	
	가구주 학력 국민학교	0 (1.0)	1 (4.7)	7 (3.2)	3 (2.0)	11(1.1%)	
	가구주 학력 중학교	0 (1.8)	5 (8.1)	9 (5.6)	5 (3.5)	19(1.9%)	***
	가구주 학력 고등학교	11 (17.7)	56 (79.8)	72 (55.2)	48 (34.3)	187(18.8%)	52.28
	가구주 학력 대학교	56 (53.9)	253 (243.0)	157 (167.9)	103 (104.3)	569(57.3%)	(12)
	가구주 학력 대학원	27 (19.6)	109 (88.4)	48 (61.1)	23 (37.9)	207(20.8%)	
	주부 직업 있음	27 (29.7)	102 (131.4)	108 (89.1)	69 (55.0)	306(30.9%)	**
	주부 직업 없음	69 (66.3)	323 (293.6)	183 (201.1)	109 (123.0)	684(69.1%)	20.24
							(3)
	가족생활주기 형성기	1 (10.7)	43 (47.5)	40 (33.0)	27 (19.8)	111(11.3%)	
	가족생활주기 초등교육기	15 (23.6)	93 (104.9)	85 (72.8)	52 (43.7)	245(24.8%)	
	가족생활주기 중등교육기	17 (16.9)	73 (74.9)	54 (52.0)	31 (31.2)	175(17.7%)	***
	가족생활주기 고등교육기	29 (21.7)	112 (96.3)	51 (66.9)	33 (40.2)	225(22.8%)	40.43
	가족생활주기 대학교육기	22 (15.6)	75 (69.3)	42 (48.1)	23 (28.9)	162(16.4%)	(15)
	가족생활주기 성인기	11 (6.6)	26 (29.1)	21 (20.2)	10 (12.1)	68(6.9%)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상상	3 (1.0)	3 (4.2)	3 (1.0)	1 (1.8)	10(1.0%)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상하	15 (4.2)	23 (18.7)	3 (13.0)	3 (8.1)	44(4.6%)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중상	46 (32.7)	169 (144.3)	91 (100.2)	34 (62.7)	340(34.4%)	***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중중	28 (49.2)	205 (216.9)	168 (150.7)	111 (94.2)	511(51.8%)	118.53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중하	3 (6.9)	17 (30.6)	21 (21.2)	31 (13.3)	72(7.3%)	(15)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하	0 (1.0)	2 (4.2)	5 (2.9)	3 (1.8)	10(1.0%)	
주택특성	주택유형 아파트	82 (69.6)	337 (308.7)	196 (213.0)	110 (129.7)	721(72.5%)	***
	주택유형 단독주택	14 (26.4)	93 (117.3)	98 (81.0)	69 (38.5)	274(27.5%)	30.85
							(3)
	소유형태 자가	89 (75.6)	351 (333.8)	217 (231.0)	127 (143.3)	784(78.7%)	***
	소유형태 타가	7 (20.4)	73 (90.2)	77 (62.6)	55 (38.7)	212(21.3%)	28.30
							(3)
	주택규모 18평 이하	1 (8.4)	21 (37.7)	30 (25.9)	36 (16.0)	88(8.9%)	
	주택규모 19-25평	5 (18.8)	66 (84.3)	75 (57.9)	51 (35.9)	197(19.8%)	***
	주택규모 26-40평	25 (43.1)	223 (192.6)	136 (132.3)	66 (82.0)	450(45.3%)	178.89
	주택규모 41-60평	19 (11.2)	57 (50.1)	23 (34.4)	18 (21.9)	117(11.8%)	(12)
	주택규모 61평 이상	45 (13.5)	45 (13.5)	28 (41.5)	10 (25.7)	141(14.2%)	
	희망하는 주택규모 18평 이하	0 (0.7)	1 (3.4)	5 (2.4)	2 (1.5)	8(0.8%)	
	희망하는 주택규모 19-25평	0 (1.7)	6 (8.0)	6 (5.7)	7 (3.6)	19(2.0%)	***
	희망하는 주택규모 26-40평	11 (35.5)	123 (161.9)	153 (116.3)	100 (72.3)	386(40.4%)	134.63
	희망하는 주택규모 41-60평	12 (18.3)	97 (83.5)	50 (59.9)	40 (37.3)	199(20.8%)	(12)
	희망하는 주택규모 61평 이상	65 (31.7)	175 (144.3)	74 (103.6)	30 (64.4)	344(36.0%)	

** : P=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 P=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1) f : 관찰빈도
2) e : 기대빈도

Ⅲ. 부엌가구의 수요특성

1. 사회계층별 부엌가구의 수요

부엌가구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사회계층별로 수요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를 예측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수요특성에 관한 변인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작업대 배열형태, 수납장 형태, 버너의 갯수, 가열대 유형, 부엌의 유형, 상판재료, 부엌과 다용도실과의 연결형태, 세탁기의 위치, 가구교체 예산 등을 포함시켰다.

상하계층의 현재 작업대 배열형태는 ㄱ자형 또는 ㄷ자형이 대부분이나 미래에는 ㄷ자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계층은 부엌의 작업대 배열형태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였다. 수납장의 형태에서 현재는 키큰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상하분리 수납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버너의 갯수는 현재와 미래 모두 4개짜리에 대한 사용 및 선호의 경향이 두드러지며 가열대 유형 역시 현재, 미래에 모두 가스 오븐 레인지가 많이 사용되고 선호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세탁기는 다용도실과 발코니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 부엌가구의 수요특성 중 작업대 형식으로는 프리스탠딩을 선호하여, 상하계층은 지나치게 짜임새있는 느낌을 주는 빌트인 시스템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앞으로 부엌가구의 교체시 예상하는 예산은 600-1500만원 미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예산규모의 폭이 다소 넓은 것은 이들 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상계층의 현재 작업대 배열형태는 병렬형 또는 키치네트형이 대부분이나 미래에는 ㄷ자형 또는 아일랜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작업시 기능과 동선이 잘 연결되는 형태를 원하거나 작업대 배열상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원하는 중상계층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 수납장의 형태에서는 현재와 미래 모두 키큰장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중상계층의 생활양식 특성상 실내장식과 부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부엌이라도 기존의 다른 공간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성을 주어 부엌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는 데에 키큰장이 효율적인 디자인 요소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버너의 갯수에서 현재는 3개 혹은 4개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4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가열대 유형에서도 현재와 미래 모두 가스오븐 레인지의 사용 및 선호 경향이 높았다. 한편 현재 세탁기는 욕실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의 부엌가구 수요특성 중 작업대 형식으로는 빌트인 시스템을 선호하므로서, 키큰장 형태의 수납장을 선호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중상계층은 일체화된 느낌을 주는 시스템 부엌에 대한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부엌가구 교체시 예상하는 예산으로 800-1500만원 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계층보다도 부엌에 대한 투자 욕구가 크고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중계층의 현재 작업대 배열형태는 일자형이나 병렬형이 대부분이나 미래에는 ㄱ자형 또는 키치네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간편함과 기능성이 겸비된 형태를 선호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수납장 형태에서는 현재 상하분리 수납장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래에는 키큰장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버너의 갯수는 현재와 미래 모두 2개 혹은 3개 짜리를 사용하며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열대 유형에서 현재는 주로 일반가스렌지를 사용하나 미래에는 가스오븐렌지를 원하였다. 현재 세탁기는 욕실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의 부엌가구 수요특성 중 작업대 형식으로는 기본 작업대와 가전기기를 각기 따로 구입하여 부엌공간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프리스탠딩(free-standing) 형식을 선호하였다. 한편 앞으로 부엌가구 교체시 예상하는 비용은 600만원 미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중하계층의 현재 작업대 배열형태는 일자형 또는 ㄱ자형이 대부분이나 미래에는 ㄷ자 또는 키치네트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작업대 면적

〈표 2〉 사회계층별 부엌 가구의 수요

수요특성		사회계층	상하계층 f[1] (e)[2]	중상계층 f (e)	중중계층 f (e)	중하계층 f (e)	계 빈도(%)	χ^2 값 (자유도)
작업대의 배열 형태	현재	일자형	24 (37.8)	150 (166.1)	131 (114.5)	83 (69.7)	388(39.4%)	
		자형	42 (32.3)	143 (142.1)	86 (98.0)	61 (59.6)	332(33.7%)	
		병렬형	1 (2.2)	11 (9.8)	10 (6.8)	1 (4.1)	23(2.3%)	**
		자형	8 (4.5)	20 (19.7)	14 (13.6)	4 (8.3)	46(4.7%)	35.34
		아일랜드형	3 (2.0)	8 (9.0)	9 (6.3)	1 (3.8)	21(2.1%)	(15)
		키친네트형	18 (17.1)	90 (75.3)	41 (51.9)	27 (31.6)	176(17.8%)	
	미래	일자형	4 (2.2)	6 (9.7)	9 (6.8)	4 (4.3)	23(2.4%)	
		자형	8 (8.2)	27 (36.3)	36 (25.2)	15 (16.3)	86(9.1%)	**
		병렬형	3 (1.1)	5 (5.1)	2 (3.5)	2 (2.3)	12(1.3%)	33.15
		자형	29 (20.6)	94 (91.7)	52 (63.7)	42 (41.0)	217(22.9%)	(15)
		아일랜드형	10 (13.2)	77 (58.7)	32 (40.8)	20 (26.3)	139(14.7%)	
		키친네트형	36 (44.7)	191 (198.5)	147 (138.0)	96 (88.8)	470(49.6%)	
버너의 갯수	현재	2개	28 (53.2)	202 (234.9)	192 (161.2)	126 (98.6)	548(55.4%)	***
		3개	10 (14.0)	66 (61.7)	46 (42.4)	22 (25.9)	144(14.6%)	92.14
		4개	58 (28.8)	156 (127.3)	53 (87.4)	30 (53.5)	297(30.0%)	(6)
	미래	2개	2 (3.1)	11 (15.7)	16 (12.4)	10 (7.8)	39(4.9%)	*
		3개	9 (17.3)	82 (87.3)	76 (69.1)	50 (43.2)	217(27.5%)	13.54
		4개	52 (42.5)	224 (214.0)	159 (169.5)	97 (106.0)	532(67.5%)	(6)
가열대 유형	현재	일반 가스	36 (63.1)	254 (287.5)	232 (194.9)	143 (119.4)	665(68.7%)	***
		가스 오븐	56 (28.9)	165 (131.5)	52 (89.1)	31 (54.6)	304(31.4%)	87.02
								(3)
	미래	일반 가스	5 (4.0)	21 (21.8)	20 (18.7)	10 (11.5)	56(8.3%)	n.s
		가스 오븐	43 (44.0)	243 (242.2)	206 (207.3)	129 (127.5)	621(91.7%)	.64
								(3)
상판 재료	현재	멜라민	68 (77.3)	330 (338.3)	237 (225.0)	133 (124.7)	768(87.9%)	***
		인조대리석	20 (10.7)	55 (46.7)	19 (31.0)	12 (17.6)	106(12.1%)	18.30
								(3)
	미래	멜라민	13 (9.3)	35 (40.9)	32 (30.8)	20 (19.0)	100(12.7%)	n.s
		인조대리석	60 (63.7)	286 (280.1)	210 (211.2)	129 (130.0)	685(87.3%)	2.77
								(3)
수납장 형태	현재	키큰장	28 (18.8)	97 (91.1)	52 (60.9)	31 (37.2)	208(23.5%)	*
		상하분리 수납장	52 (61.2)	290 (295.9)	207 (198.1)	127 (120.8)	676(76.5%)	9.41
								(3)
	미래	키큰장	56 (59.9)	291 (284.2)	210 (204.3)	125 (134.5)	682(84.1%)	*
		상하분리 수납장	14 (11.1)	47 (53.8)	33 (38.7)	35 (25.5)	129(15.9%)	7.13
								(3)
작업대 형태	현재	빌트인 시스템	18 (18.7)	90 (82.6)	54 (56.8)	30 (33.9)	192(21.0%)	n.s
		프리 스탠딩	71 (70.3)	303 (310.4)	216 (213.2)	131 (127.1)	721(79.0%)	1.59
								(3)
	미래	빌트인 시스템	50 (53.1)	251 (243.3)	174 (181.2)	120 (115.8)	595(73.7%)	n.s
		프리 스탠딩	22 (18.9)	79 (86.7)	74 (65.1)	37 (41.2)	212(26.3%)	3.83
								(3)
부엌 유형	미래	벽면부착형	62 (60.4)	268 (266.4)	182 (181.2)	110 (114.1)	622(67.1%)	n.s
		거실대면형	28 (29.6)	129 (130.6)	88 (88.8)	60 (55.9)	305(32.9%)	.61
								(3)
부엌 가구 교체 예산	미래	100 만원 미만	4 (2.2)	6 (9.7)	9 (6.8)	4 (4.3)	23(2.4%)	
		101-200만원	8 (8.2)	27 (36.3)	36 (25.2)	15 (16.3)	86(9.1%)	***
		201-400만원	3 (1.1)	5 (5.1)	2 (3.5)	2 (2.3)	12(1.3%)	86.39
		401-600만원	29 (20.6)	94 (91.7)	52 (63.7)	42 (41.0)	217(22.9%)9	(21)
		601-800만원	10 (13.2)	77 (58.7)	32 (40.8)	20 (26.3)	139(14.7%)	
		801-1000만원	36 (44.7)	191 (198.5)	147 (138.0)	96 (88.8)	470(49.6%)	
		1001-1500만원	29 (20.6)	94 (91.7)	52 (63.7)	42 (41.0)	217(22.9%)	
		1501만원 이상	10 (13.2)	77 (58.7)	32 (40.8)	20 (26.3)	139(14.7%)	

* : P=.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 P=.01 수준에서 유의적임
*** : P=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 유의적이지 않음

1) f : 관찰빈도
2) e : 기대빈도

이 보다 넓은 것을 구매하게 되라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수납장의 형태에서는 현재와 미래 모두 상하 분리 수납장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하류 계층의 주택 특성상 공간의 여유가 적음에 따라 수납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위아래로 점유함으로서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키큰장 형태보다는, 작업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납면적을 확보하면서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는 상하분리 수납장이 보다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버너의 갯수에서 현재는 2개짜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2-3개 짜리를 원하며, 가열대 유형에서 현재는 일반가스렌지를 원하나 미래에는 가스오븐렌지를 원하여 점차 부엌의 시설, 설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세탁기는 다용도실과 욕실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래의 부엌가구 수요특성중 작업대 형식으로는 빌트인을 선호하여, 부엌의 규모가 좁기는 해도 남는 공간없이 짜임새있게 설치되어 공간감을 주는 형태에 대한 선호가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앞으로 부엌가구 교체시 예상하는 예산으로는 400만원 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만한 가격으로 앞서 예측된 미래의 부엌가구 수요특성을 고려하여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중하계층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디자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2. 부엌가구에 대한 수요 예측

수요특성 중 몇가지 변인에 대해서는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부엌가구에 대한 선호가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상 및 하류 계층을 제외한 서울시 거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부엌가구의 수요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대 배열형태는 앞으로 키치네트형이 가장 많이 선호될 것으로 예측되며, 수납장의 형태는 현재 상하분리 수납장에서 키큰장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작업대의 형식은 현재 프리스탠딩에서 앞으로는 빌트인 시스템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며, 가열대의 유형과 버너의 갯수는 현재 버너 2개 짜리의 일반가스렌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개 이상의 버너를 갖춘 가스오븐레인지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부엌의 상판재료는 현재까지는 멜라민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미래에는 인조대리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엌의 유형에서는 기존의 형태인 벽면 부착형이 여전히 선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엌에 대한 의식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디자인된 형태인 거실대면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부엌과 다용도실의 연결관계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부엌공간내에서 세탁 및 기타 가사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키친 유틸리티 형식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도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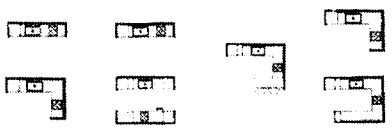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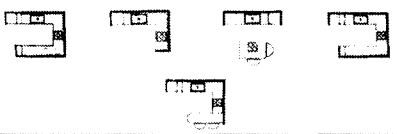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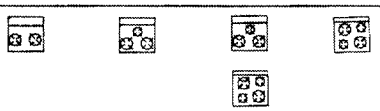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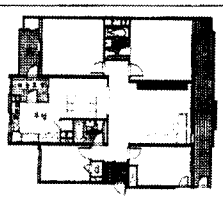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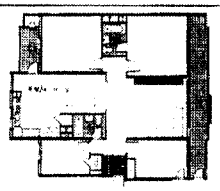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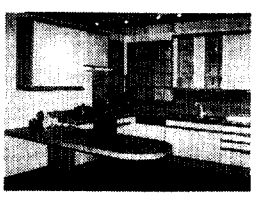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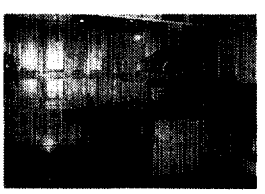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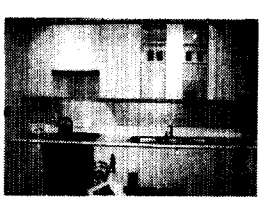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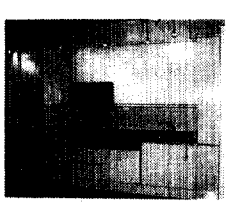
Ⅳ. 결론 및 제언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사회계층별 소비자들의 부엌가구에 대한 수요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제언한다.

서울시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일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심리적 만족감도 적으므로 앞으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엌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각 계층별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부엌가구의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하계층은 부엌에 대한 변화요구가 그다지 크지 않은 집단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주택규모에 여유가 있으므로 공간이 전체적으로 꽉 짜인 느낌을 주는 빌트인 시스템 부엌보다는 작업대 배열이 자유롭고 개성적인 형태의 부엌유형을 더욱 선호할 것이다.

중상계층에서는 앞으로 ㄷ자형 작업대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특히 다른 계층의 소비자들에 비해 부엌에 대한 투자욕구가 크고 미적인 관심도 매우 높은 집단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				미 래			
	티 코	엘란트라	소나타	그랜저	티 코	엘란트라	소나타	그랜저
작업대 배열형태								
버너갯수								
부엌과 다용도실 연결형태	 부엌, 다용도실 분리형				 부엌과 다용도실 통합확장형 (키친 유틸리티)			
부엌유형	 벽면부착형				거실대면형			
작업대 형 식	프리스탠딩 가전기기만 따로 구입, 설치하는 형태				 빌 트 인 부엌가구와 기기가 일체화된 시스템 부엌			
수납장 형 태	 상하분리 수납장				 키큰장			
예 산	〈도표〉 부엌가구 구매행위 예측표				400만원 미만	600만원 미만	800-1500만원	1000-1500만원

중중계층은 앞으로 ㄱ자형, 키치네트형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며 이 계층의 소비자를 위한 중저가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개발이 요망된다.

중하계층은 ㄷ자형과 키치네트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되며 무엇보다도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므로, 최소한의 면적과 설비만으로도 충분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층별 생활양식, 수요욕구 및 구매행위 특성 상의 차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등적인 판매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종은(1985). 상점선택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 김홍대(1991). 신소비자 행동론. 형설출판사.
3) 박만정(1987). 소비자 구매 동기에 따른 시장 세분화 전략. 단국대 석사논문.
4) 박종섭(1989). 가족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5) 신규식(199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표적 마케팅 방안 연구. 세종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6) 윤복자외(1985). 한국부엌의 작업대와 수납장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III.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주생활연구부.
7) 윤종성(1987). 부엌가구의 성숙기 시장을 대비한 마아케팅 전략과 전개 방향.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8) 정시화(1987). 자가 승용차 시장의 세분화를 위한 소비자 구매행태 분석-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9) 한국소비자 보호원(1990).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 구조 조사.